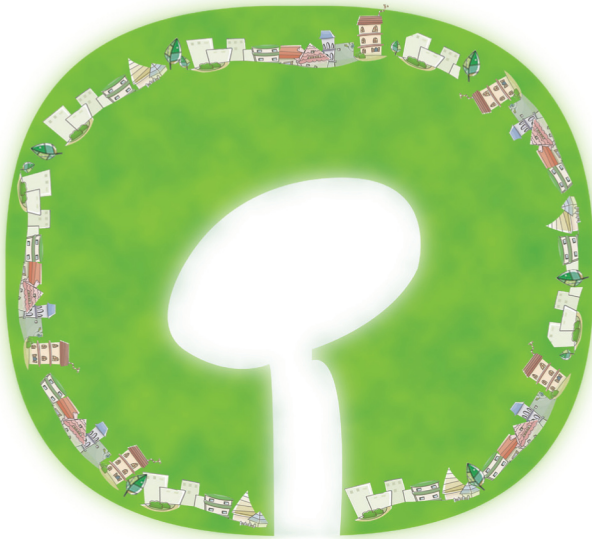


2011-R-03

# 지역살림운동 길잡이



모심과 살림 연구소

## 자료집을 내며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이 그동안 역점을 두고 노력해 온 먹거리에 기반한 직거래 사업과 생활실천 활동의 경험들을 살려서 다양한 생활 속 과제들(교육, 환경, 복지, 일자리 등)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조합원의 참여로,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려는 한살림의 뜻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살림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한살림은 25년 전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을 때부터 지역을 만나고 살림의 가치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해 왔다. 그런데 '지역살림'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 부터다. 사업과 활동 영역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한살림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살림이 운동적 과제로 모색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다양한 기초조직 활동으로 조합원의 참여와 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한살림의 가치를 사회화 하는 차원에서 지역살림운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지역살림'은 한살림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아 온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에 더해 한살림의 주요 실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살림운동과 연결하여 지역살림이 공식적인 비전과 내용으로 정리되거나 조직적인 실천 과제로 구체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만큼 지역살림운동을 이론화, 체계화 하고 구체화, 현실화 시켜내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근래에 들어 한살림 안팎으로부터 지역살림운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지역살림운동의 방향을 잡고 내용을 정리해 나누는데 더욱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살림에서는 모심과살림연구소 주도로 2007년에 지역살림운동과 관련한 논의와 실천들을 함께 모색해 보는 기획 강좌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모아 '지역

살림운동의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총서를 발간하였다. 2009년에는 수도권 지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살림운동과 관련한 조합원 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그리고 2009년(수도권)과 2010년(전국)에는 한살림 각 지역으로부터 지역살림운동과 관련한 실천 사례들을 추천받아 정리하고 사례 나눔의 자리를 가지기도했다. 한편, 2008년부터 '지역살림운동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도중에 참여자들의 구성이 바뀌기도 했으나, 한살림 차원에서 지역살림운동의 의미와 방향, 전략과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단위로써 역할을 해 왔다.

이제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의 주요 실천 영역이자 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지역조직별 중장기 비전과 사업계획 속에도 지역살림에 대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비전과 전망을 분명히 하고 조합원과 함께 인식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이 지금 시대와 한살림운동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전망과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지역 현장에서 조합원과 이웃들이 함께 꿈을 꾸고 마음과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하는 '지역살림운동 길잡이'는 지역살림운동 연구모임을 통해 확인된 현장 활동가들의 고민과 요구, 제안들을 모으고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넘게 연구모임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현장 활동가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와 생활 현장에서 표출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요구들을 함께 안고 풀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추상과 현실, 거시와 미시, 이념과 실천사이를 오가면서 현장 활동가들에게 쓰임새 있는 내용을 만드는 것은 보다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져야 가능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되는 안내서는 지역살림운동과 관련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매개물로서 의미 있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현장 활동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은 현장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내

서에서 담아내지 못한 내용과 보완할 부분은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번에는 다른 지역살림운동의 영역과 내용은 주로 도시 조합원들의 생활 여건에 맞춘 것으로, 지역살림운동의 또 다른 중요 영역인 농촌 지역의 생산 및 생활 실천 활동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연구 및 안내서 발간 역시 앞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를 밝혀 둔다.

지역살림운동 연구모임에 함께 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이번 안내서가 한살림이 조합원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넓고 깊게 만나가는 데 의미 있는 활용 자료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모심과살림연구소

## 〈지역살림운동 길잡이〉

자료집을 내며

### I. 지역살림운동 이해하기

- 1 1. 한살림이 싹틔워 온 지역살림
- 1 1) 한살림과 지역의 만남, 살림으로 관계 맺기
-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함께 살아가는 한살림운동을 시작하다
  - '공동체 공급'을 통해 이웃과 만나다
  - '지소' 설립을 통해 사업과 활동의 공간을 마련하다
  - '동네살림모임'을 통해 활동에 대한 구상을 지역 전체로 넓혀가다
  - '지부' 설립으로 지역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다
  - '매장'을 통해 지역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다
  -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비전, '지역살림'을 제안하다
- 9 2) 조합원과 함께 성장해 온 지역살림
- 비슷한 가치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 관심 분야를 넓히고 활동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다
  - 이웃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다
  - 지역살림의 시대를 맞이하다
- 13 2. 지역살림운동 왜 필요한가?
- 삶의 위기 확대와 협동적 실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한살림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조직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 조합원이 다양화 되고 참여 욕구들도 변화하고 있다
  - 조합원의 성장과 조직적 실천 역량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 조합원 및 지역과의 관계 맺음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 17 3. 지역살림운동이란 무엇인가?
- 17 1) 지역살림운동에 담긴 의미들
- 지역살림운동의 정체성은 '살림'으로부터
  - 살림의 눈으로 본 '지역'
  - 살림의 눈으로 본 '운동'
- 22 2) 지역살림운동이 가진 특성들
-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살림운동이다
  - 지역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다
  - 살림의 주체들이 지역에서 펼쳐가는 운동이다
  - 살림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운동이다
- 26 4. 한살림운동의 창조적 진화, 지역살림운동
- 생협으로서 물품과 사업이 가진 의미를 지역살림운동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원의 특성과 필요들을 기초조직 활동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 지역살림운동은 조합원활동의 새로운 확장이자 한살림운동의 창조적 진화다

## II. 지역살림운동 함께하기

- 35 1. 누가 하는 거지?
- 38 1) 활동가의 역할
- 39 2) 실무자의 역할
- 40 3) 조직의 역할
- 42 4) 지역살림의 파트너들
- 46 2. 지역살림운동 이렇게
- 46 1) 지역살림운동의 고려 요소
- 47 2) 지역살림운동의 원칙들
- 지속적으로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혀 나간다
  - 다양한 참여 동기를 인정하고 시작한다
  - 활동의 모든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다
  -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박하게 시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 불변의 주어진 해답은 없다</li> <li>• 해결책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li> </ul>
50	<b>3) 지역살림운동의 단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지역 이해하기</li> <li>• 2단계: 과제의 발굴</li> <li>• 3단계: 과제의 구체화와 실행 계획 수립</li> <li>• 4단계: 과제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숙성시켜 내기</li> <li>• 5단계: 과제의 안정적인 실천을 위한 구조 만들기</li> </ul>
53	<b>4) 지역살림운동의 영역과 내용</b>
58	<b>5) 생애주기와 지역살림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생애주기와 지역살림운동</li> <li>• 조직의 생애주기와 지역살림운동</li> </ul>
65	<b>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b>
65	<b>1) 지역살림운동의 방향</b>
66	<b>2) 도전과 과제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흐름들의 균형 있는 연결과 결합</li> <li>• 인식과 활동의 단절을 넘어선 유연한 확장</li> <li>• 자발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나아가기</li> <li>•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연대와 협력</li> </ul>
69	<b>3) 조직 차원의 준비와 역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살림운동에 대한 조직적 비전과 전망을 수립한다</li> <li>• 지역살림운동을 조직별 사업과 활동계획 속에 반영해서 실천하고 평가한다</li> <li>• 지역살림운동의 지속적 실천을 위한 지원 체계를 조직적으로 마련한다</li> </ul>
72	※ 지역살림운동 길잡이 자료들
78	※ '지역살림운동 길잡이'가 나오기 까지

# I. 지역살림운동 이해하기





# I. 지역살림운동 이해하기

## 1. 한살림이 싹틔워 온 지역살림

### 1) 한살림과 지역의 만남, 살림으로 관계 맺기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기 위한 한살림운동에서 지역은 생동감 넘치는 삶의 무대이자 생명살림을 위한 중요한 실천 현장이다.

한살림은 처음부터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왔다. 농촌과 도시를 연결한 ‘도농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던 한살림은 ‘공동체 공급’을 통해 이웃과 만나고, ‘지소’를 만들어 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고, ‘동네살림모임’을 통해 활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런 노력들은 ‘활동지부’와 ‘매장’ 설립을 통해 지역에 튼튼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으며, 마을모임, 소모임 등 ‘조합원 기초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 속에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경험과 힘을 길러 왔다.

### ·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함께 살아가는 한살림운동을 시작하다

25년 전 한살림은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한집살림 하듯 협동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면서 서울 제기동에 ‘한살림농산’<sup>1)</sup>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고 도농직거래 운동을 시작했다.

<sup>1)</sup> 1986년 12월 4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192번지에서 문을 연 ‘한살림농산’은 20평 정도의 작은 가게로 초기에는 무농약 쌀과 유정란, 참기름, 들기름, 메주 등 취급 품목도 몇 가지 안됐지만 그 품과 이상은 원대 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하고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현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한살림은 농촌과 도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새롭게 잇는 일부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한살림의 운동 목표 속에서 ‘지역’은 주로 생산자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농촌과 소비자들이 생활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명살림의 농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sup>2</sup>를 생산하는 생산자들과 그 가치를 알고 책임소비에 노력하는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서로 연결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한살림의 목표였다.

따라서 한살림의 직거래 활동에는 안전한 농산물을 나누어 먹는 활동뿐만 아니라 생명의 가치와 협동의 원리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담겨 있었다. 한살림에 참여했던 도시 소비자들은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농촌 생산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런 꿈과 마음들이 모여서 1988년에는 ‘한살림 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 ‘공동체 공급’을 통해 이웃과 만나다

한살림이 지역과 구체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1987년에 조합원 규모가 800여 가구로 성장한 뒤 시작한 ‘공동체 공급’을 통해서다. 공동체 공급은 소비자 조합원이 다섯 가구 이상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해 필요한 물

<sup>2)</sup> 그동안 ‘먹을거리’와 ‘먹거리’가 함께 사용되어 왔었는데, 2011년 8월 국립국어원에서 ‘먹거리’로 표준어를 정한 바 있다.

품을 주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받아서 함께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까다롭고 불편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데는 소비자들이 가까운 이웃과 함께 한살림 물품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직거래 운동을 지속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이 물품 공급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서 이웃과 만나 생활을 나누고 함께 공부도 하는 ‘생활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회와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공동체 공급을 통해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환경이나 농업에 대해 공부도 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생활을 나누게 되었다. 한살림이 공급하는 물품이 매개가 되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주부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이웃 관계를 넓혀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에서 한살림 회원들이 극소수였던 당시 공동체 대표와 조합원들이 가졌던 열정과 헌신은 초창기 한살림을 지역에 알려내고 활동을 펼쳐가는데 중요한 힘이 되었다. 공동체 공급 시절 한살림 활동은 직거래를 통해 맺어진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비슷한 가치 지향을 가진 소비자 조합원들 간에 공동체적 신뢰 관계를 높이는데 맞추어져 있었다. 대신 공동체 공급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고자 노력한 것과는 별개로 ‘지역’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이지는 못했고 활동 내용도 지역으로 충분히 열려 있지는 못했다.

### • ‘지소’ 설립을 통해 사업 및 활동 공간을 마련하다

1988년에 이르러 110여개의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서 공동체들 간에 교류와 소통을 위한 지역협의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는 생활문화, 교육, 홍보, 물품 등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이웃간 공동체 단

위를 넘어서 보다 넓은 지역을 무대로 하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거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품을 나누고 강좌를 여는 등 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활동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공급소로 불리는 ‘지소’가 서울 관악 지역을 시작으로 만들어졌다.

지소의 등장은 조합원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당시 지소는 조합원을 만나고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조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으로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고,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지소들은 본부 조직에 통합되게 되었다.

#### · ‘동네살림모임’을 통해 활동에 대한 구상을 지역 전체로 넓혀가다

한살림은 한살림운동을 지역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단위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전체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한살림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동네살림모임’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동네살림모임은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이웃과 동네를 만나 관계를 맺고 한살림을 알려 나가는 기본적인 활동 단위 조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1993년 3월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동네살림모임을 제안한 내용이다.

“한살림운동은 단순히 물품 나눔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나눔 활동입니다.”

한살림은 동네살림모임을 통해 좋은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의 공간과 생활문화를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갔다. 물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생산과 책임소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살림살이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생산지방문과 일손 돕기, 생산자와의 대화 등을 통한 도농공동체 활동은 물론이고, 식생활에 대한 공부, 비누 만들기, 음식물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등의 자원재활용 운동, 동네신문 만들기 같은 자치활동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동네살림모임은 1994년부터 한살림 회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하는 지역사회사랑방모임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네살림모임은 한살림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과 만나고 관계의 폭을 넓혀 가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공동체적인 방향으로 바뀌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망이나 실천 기반들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 · ‘지부’ 설립으로 지역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다

지역의 물품공급 공간으로서 공급소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던 지소, 그리고 실무자가 지역에 파견되어 조직을 운영하던 지부를 거쳐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 활동을 전담하는 ‘활동지부’가 1996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조합원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모임이 활성화 되면서 등장한 활동지부는 지역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대신 사업과 경영에 대한 책임은 실무자들이 맡는 구조였다.

활동지부의 설립은 지역에서 한살림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든든한 거점이 마련되었음을 말해준다. 한살림은 지부를 중심으로 먹거리는 물론 교육, 환경, 자치 등 지역사회의 중요한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부 차원에서 생산지 공동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지부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하면서 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조합원들과 소통의 기회도 넓힐 수 있었다.

한편, 조직분화 과정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지부’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지부 차원의 지역 활동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한살림의 수도권이 고양파주, 성남용인, 경기남부로 분화하고, 한살림 서울은 7개의 광역지부로 재편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한살림은 조합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지역 한살림으로의 분화와 광역지부 체제로의 변화는 조합원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조직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지역 자치와 자율성이 한살림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sup>3)</sup>

이처럼 한살림은 활동지부와 광역지부를 거치면서 지역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한살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 ‘매장’을 통해 지역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살림은 한편으로는 지부를 만들어 조합원 자율적인 활동들을 펼쳐나갔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매장을 만들어서 물품을 매개로 조합원과의 만남을 일상화 하고 지역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나갔다.

<sup>3)</sup> 서울의 경우 광역지부로의 분화에서 ‘조합원 참여가 이루어지는 조합원 자치 실현’,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운영’, ‘분화와 연대의 조화’, ‘지역 리더십 만들기’와 책임 있는 자기역할 수행’ 등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도시생활양식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매장의 등장은 다른 한편으로 초창기 한살림운동을 일구었던 공동체공급 방식이 한계를 맞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처럼 주거 이동성이 높은 도시생활 환경에서 공동체 공급 방식을 지속시키기 어려워 개별 공급 체계로 바꾸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매장 개설도 적극 고려하게 된 것이다.

매장의 운영 체계도 계속 변화되어 왔는데, 1995년부터 시작되어 회원 두 사람 이상이 운영하던 자주관리 매장은 2000년에 운영 주체가 회원인 직영매장 체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실무자가 매장 운영 책임을 맡던 데서 주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살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장은 지역에서 사업과 활동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역에서 매장은 조합원은 물론 지역 사람들이 한살림의 존재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고, 매장을 통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다 폭넓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매장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살림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한살림과 지역과의 관계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비전, '지역살림'을 제안하다**

2000년대 들어 IMF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데다가 유기농산물 시장의 경쟁 또한 갈수록 심화됨으로서 한살림도 성장세의 둔화에 따른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살림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 속에서 조직 체계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한살림은 2002년에 조직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한살림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 지역의 한살림운동 조직을 생협 형태로 전환하게 되고, 회원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밀착된 한살림 조직 만들기, 조합원 참여의 활성화와 자율과 자치의 확대, 지역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문제 대응 등이 한살림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지역 활동가의 배치를 통해 조합원이 주체가 된 지역 활동 체계도 갖추게 되었다.

한살림을 둘러싼 안팎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실천력을 키워내기 위한 문제의식들을 모아서 2004년에 ‘지역살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에 이르러 한살림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통해 ‘지역살림운동’이 한살림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분명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 2) 조합원과 함께 성장해 온 지역살림

### • 비슷한 가치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친환경 먹거리가 대중화 되고 직거래 사업과 생협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진 오늘날에는 한살림 조합원이라고 해서 별난 사람으로 취급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살림이 시작되던 초창기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먹는 것에 까다로운 사람’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한살림에 가입할 수 없었고, 가입해서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물품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은 이웃의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삶의 쉼표이자 활력소가 되었다.

동네에서 또래 아이를 둔 엄마들, 같은 아파트나 주택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숨 막히는 경쟁으로 지치고 답답해하던 사람들은 활력을 얻고, 남들과 조금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외로워했던 사람들은 위안을 얻었다. 이처럼 ‘한살림’이라는 말처럼 조합원 모임을 통해 ‘한집살림’ 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조합원들은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보다 확장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꿈을 꾸게 된다.

### • 관심 분야를 넓히고 활동 역량을 성장시켜 나간다

한살림이 인연이 되어 함께 한 사람들은 먹거리는 물론 삶의 지향점과 생활 속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닮아 있었다. 이것은 모임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먹거리를 넘어서 교육, 건강, 복지, 노동, 환경 등으로 폭넓게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 아이가 어렸

을 때는 먹거리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교육과 안전, 아동 인권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느끼게 된다.

조합원들은 한살림을 통해서 육아, 품앗이, 요리, 바느질, 생태, 텃밭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소모임들을 만들고 참여하면서 서로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나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합원들은 모임을 통해 환경과 식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재생휴지와 재생비누를 활용한 생활 실천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살림 가족잔치, 단오잔치, 가을걷이 잔치 등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활동해오던 다른 지역의 회원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기회도 가져나갔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지역생명 운동으로서 자치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져, 조합원 활동 영역도 부녀회,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해졌다.

한편,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조합원들의 활동 역량도 성장했다. 마을모임과 소모임에서 책임(지기)을 맡아 활동 주체로서 경험을 쌓고, 지부의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또는 역량을 갖추어 활동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가기도 한다.

### • 이웃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다

한살림은 초기 공동체 공급을 통해 개인적 문제를 펼쳐 놓을 수 있는 ‘수다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면서 ‘가치 공동체’로 발전시켰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꿈을 구체적으로 꾸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의 범위를 비조합원인 이웃을 향해 넓혀 나가게 된다. 이전에는 ‘우리끼리’가 좋았다면 이제는 지역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들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잘 아는 조합원들 간의 소모임을 발전시켜 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놀이나 전래놀이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알뜰장터를 열어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도 한다.

이처럼 한살림이라는 조직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한살림 내부와 바깥세상의 구분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한살림이 지역의 중요한 대중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한살림이라는 조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던 데에서 생활의 눈으로 한살림을 살펴보고 사회와 함께 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지역에서 찾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한살림 회원끼리 해 오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운동의 경험을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함께 폭넓게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한살림은 각자 처한 삶의 조건과 생활 여건도 다르고 지향하는 가치도 다양한 이웃들과 만나서 함께 ‘행복한 삶’, ‘살 맛 나는 생활’,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에 대한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지역이 풍요로워지고 이웃이 행복해질 때 나와 가족의 행복도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 • 지역살림의 시대를 맞이하다

지역살림운동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살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마을모임을 꾸리고 마을지기를 세워 주체를 키워나가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한살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합원 활동들은 이미 ‘지역살림’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한살림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펼쳐온 조합원활동들은 곧 지역살림의 씨앗을 지역에 뿌려온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뿌려온 씨앗을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게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역살림운동은 ‘조합원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지역 속에서’ 펼쳐나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의 영역을 지역 전체로 확장시키고, 지역에 있는 한살림을 포함한 다양한 생협단체들이 연대해서 먹거리 문제를 함께 책임지고, 지역 내 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아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학교와 지자체, 의회 등과 협력해서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지역살림운동을 통해 적극 펼쳐나갈 때가 되었다.

## 2. 지역살림운동 왜 필요한가

### · 삶의 위기 확대와 협동적 실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토피 문제에서부터 먹거리 위기, 사회 양극화와 실업 문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먹거리는 물론 출산, 육아에서 교육, 환경, 자치, 복지 등 삶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사회 문제이자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현재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 차원의 실천이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게 되었다. 결국 생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협동의 힘으로 삶의 안전판을 단단히 하고 살림의 그물망을 촘촘히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 · 한살림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앞장서 제기하고 해결해 왔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의 기반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 스스로의 자립 기반과 폭넓은 대중조직을 갖추고 있는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단체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역의 생활 현장 속에 뿌리를 내려온 한살림의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성 또한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010년 2월 개정된 생협법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생협의 주요 역할로 새롭게 설정한 바 있다.<sup>4)</sup> 이제 한살

<sup>4)</sup> 개정 생협법 제8조에는 ‘조합 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부분을 신설하였다.

림은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들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창조적인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때다.

### • 조직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25년간 한살림이 일구어 온 성과들 못지않게 극복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유기농 산물과 직거래, 생협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영역들이 상당부분 일반화 되고 보편화 되었다. 그만큼 한살림이 가져온 운동적인 정체성을 변화된 조건 속에서 더욱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것은 한살림 안팎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정체성을 다지는 기회로 연결된다.

한편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과 활동이 체계화 되면서 조합원과 밀착된 소통과 기초 조직을 통한 참여의 확대도 한살림이 더욱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 이것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연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들이 사업과 활동 모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성을 말해준다.

### • 조합원이 다양화 되고 참여 욕구들도 변화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한살림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참여자들의 성향도 매우 다양해지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문턱도 상당히 낮아졌다. 여기에서 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한살림을 통해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이제는 ‘한살림이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들도 조합원과 활동기들

로부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먹거리를 비롯해서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영역들이 위기 상황에 노출되면서 한살림이 ‘먹거리의 안전성’만 이야기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그만큼 먹거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생활 속 필요와 과제들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몇 년 사이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의 구성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욕구들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동시에 기존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의 변화들도 조직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 • 조합원의 성장과 조직적 실천 역량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한살림에 가입해서 물품을 이용하기 시작한 조합원들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직거래에 기반한 자신들의 구매 활동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이후 조합원들은 물품 이용에 머물지 않고 조합원 기초조직인 마을모임 등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관심 분야에 따라 소모임에도 참여한다. 이들 중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조합원들은 매장과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 지부에서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광역 단위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워커즈 등 새로운 활동 영역을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한살림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를 발전시키고 소통하고 관계하고 기획하고 창조하는 역량들을 키우게 된다. 특히 협동조합의 원리로 운동과 경영, 활동과 사업의 영역을 함께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조직의 경험들은 지역살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참여 활동과 교육

과정을 통해 성장한 조합원들 외에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늘어나 조직 차원의 실천 역량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편, 개인의 실천 경험은 조직적 역량으로 이어져서 근래에 들어서는 새로 탄생하는 지역 조직들의 경우 기존의 조직들이 거쳐 왔던 성장과 변화의 과정과 단계들을 훨씬 더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살림이 지역과 만나는 속도와 폭이 점점 더 빨라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 • 조합원 및 지역과의 관계 맺음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조합원 및 활동가들과 한살림과의 관계 맺음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한살림에서 임원 등의 역할을 맡다가 역할을 마치게 되면 그냥 물품을 이용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살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활동의 경험들이 단절되지 않고 조직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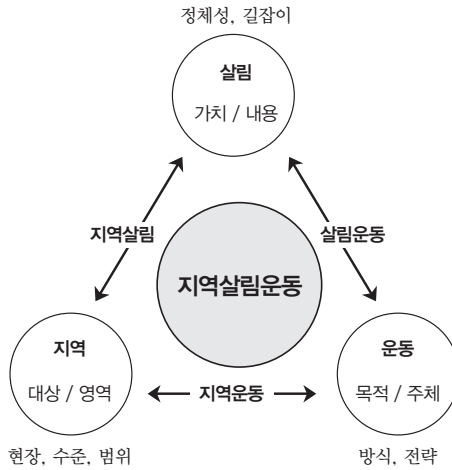
활동가들 역시 한살림과 함께 하는 활동의 주기가 길어지면서 결합의 수준과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는 조합원 노동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활동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이 형성된 점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살림 차원에서 오랜 활동 경험을 가진 조합원과 활동가들이 새로운 활동 영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부나 매장이 만들어져 지역에 뿌리내리면서 조합원과 만남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지역에서도 한살림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 3. 지역살림운동이란 무엇인가

#### 1) 지역살림운동에 담긴 의미들

〈그림 1〉 지역살림운동에 담긴 의미



‘지역살림운동’은 글자 그대로 ‘지역’과 ‘살림’, ‘운동’의 서로 결합된 말이다. 하지만 지역살림운동은 이들 세 가지 개념어의 단순한 결합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 • 지역살림운동의 정체성은 ‘살림’으로부터

무엇보다 지역살림운동의 정체성은 ‘살림’에서 찾을 수 있다. ‘살림’은 ‘지역’과 ‘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세 가지 요소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결합시켜 내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살림'에 담긴 의미는 시대별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의식주를 포함해서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담은 살림의 의미는 전통 사회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거치면서 가족 단위의 생산과 활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들의 '집안 일' 정도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 살림의 의미는 더욱 왜곡, 축소되었다. 생산과 소비, 삶터와 일터가 분리된 상태에서 살림은 노동력 재생산과 소비활동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자,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비공식적 가사 노동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sup>5)</sup>

결국 생명 위기, 삶의 위기 시대를 맞아 생명을 낳고 기르고 삶을 이어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살림'이 가진 본래 의미에 주목하고 되살려 낼 필요가 있다.<sup>6)</sup> 오늘날 살림은 개체 생명들이 가진 개성과 활력이 자유롭게 발산되도록 하는 일에서부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력들을 포함해서, 죽음의 상황에 처한 못 생명들을 지키고 살리려는 일체의 거룩한 활동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sup>7)</sup> 당연히 살림의 주체도 주부 여성을 포함해서 살림의 지혜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각성된 주체들이 모두 포함된다.

<sup>5)</sup> '회사 살림', '나라 살림'처럼 가정의 범위를 넘어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 관리나 운영 상태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up>6)</sup> 경제(economy)라는 말의 접두어인 eco가 집(house)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oikos에서 비롯되었듯이 원래 경제는 살림살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다스리고(經) 구제하다(濟)'의 의미를 가진 경제(經濟)의 본 뜻 역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제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돈(화폐) 중심의 경제가 살림의 영역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살림의 눈으로 경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up>7)</sup> 물론 살림이 새로운 시대 가치로 등장한 것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일찍이 근대화, 산업화의 부작용을 경험했던 서구 사회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했던 녹색운동, 신사회운동이 그러하며,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경쟁과 억압, 배제와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과 '연대', '돌봄'과 '보살핌'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살림의 영역 또한 가정은 물론 지역살림, 나라살림, 지구살림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가정은 살림의 기본 영역이자 생명 감수성을 기르고 체험하는 가장 일차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내기 위해서는 살림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5년 전에 일찍이 눈 밝은 이들이 앞서서 한살림운동을 통해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들도 있지만, 근래에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살림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sup>8)</sup>

### • 살림의 눈으로 본 ‘지역’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듬살이’ 공간이었던 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터와 삶의 분리와 이웃 간 관계의 단절로 사람들이 정을 붙이고 뿌리내려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으로 변해 버렸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 이후 불어 닥친 민주화와 지방화 흐름 속에서도 별로 나아지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은 상대적인 자율성과 박탈감이 결합된 채 개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살림의 눈으로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다. 지역은 더 이상 경제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장소이며,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자치의 현장이고, 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

<sup>8)</sup>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땅과 물을 살리기 위한 ‘흙살림’, ‘물살림’, 경쟁과 속도에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을 살리기 위한 ‘몸살림’, ‘마음살림’,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것들을 고쳐서 다시 쓰는 ‘되살림’ 등 다양한 유형의 살림운동들이 등장하고 있다.

“생명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생활공간이야말로 생명운동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살림은 일상의 가장 소중한 행위인 ‘밥 한 그릇’을 먹는 행위를 통하여, 그리고 이웃들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기 운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sup>9)</sup>

이처럼 생산과 소비, 여가 활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살림의 기본 단위이자, 살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현장으로서 지역이 가진 다양한 의미와 가능성들을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지역은 경제와 생태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와 충격으로부터 삶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울타리’이자 ‘안식처’이며,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다. 또한 지역은 가정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살림의 영역을 사회 속으로 확장시켜내는 ‘디딤돌’이자 ‘징검다리’이며, 만남과 소통, 치유와 돌봄, 자립과 자치를 통해 생산과 소비, 여가와 생활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나가는 살림운동의 ‘현장’이자 ‘무대’다.

### • 살림의 눈으로 본 ‘운동’

‘운동’이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의 지향성과 공공성,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과 창조성, 실천을 위한 토대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은 운동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의 성격과 내용,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 변화를 매개하고 촉발하기 위한 운동이 사회적 흐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변화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sup>9)</sup> 윤희진(2004), “지역생명운동으로서의 한살림: 자립, 자급, 자치, 어떻게 볼 것인가”, 2004년 9월 2일자.

그동안의 운동은 국가 또는 자본을 중심으로 한 거대 시스템이 만들어 내는 제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극복하거나 또는 이들이 채워주지 못한 빈 영역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으며,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운동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상당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은 운동이 국가 또는 자본을 대척점에 놓고 단일한 이념과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조직과 지도자의 역할에 크게 의존한 채 시민을 비롯한 참여자들을 계몽하여 동원하고 자원을 조직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에 갇혀 있고 조직에 가려져 있던 개인들이 자기 개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가와 시장의 실패가 만들어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켜내고, 나아가 ‘자기 실현’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연결시켜 보람과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살림운동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살림의 가치를 담은 운동은 조직의 목적 달성 이전에 과정을 통한 사람의 변화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화 된 운동 방식이 아니라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해 가는 살아있는 운동이 바로 살림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거나 조직의 이념을 자신의 이념으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조직의 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직접 세상을 만나고 경험을 통해 직접 판단하려 한다. 따라서 운동 방식에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조직이 대신’ 해결해주던 데서 벗어나 ‘조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스스로 조직과 자원을 만들어서 필요를 해결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

타나게 된다. 운동의 비전과 목표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여 주체들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아래로부터 만들어내고, 운동의 에너지 또한 조직적 동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여 주체들이 자신들에 내재된 힘을 스스로 발견하고 연결하고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

이점에서 지역살림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내용, 방식 등에 있어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특성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 2) 지역살림운동이 가진 특성들

‘지역살림운동’이란 살림의 눈으로 지역과 운동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하여 ‘경쟁을 통해 홀로 살아남기’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역을 살림의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짜나가는 것을 말한다.

살림살이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밑으로부터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지역살림운동의 특성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살림운동이다.

지역살림운동은 변화의 가능성을 지역에서 찾고 지역으로부터 대안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말처럼, 지구적인 차원의 위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결국 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지역에 대한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책과 제도, 국가와 시장, 나아가 문명의 전환을 위한 모든 변화는 결국 지역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생산과 소비, 여가, 생활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으로

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가능성들을 발견해서 모아내고 연결시켜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역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살림운동을 지역살림운동이라 부를 수 있다.

### • 지역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다.

지역을 살리는 것이 곧 사회와 국가, 나아가 문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 점에서 지역살림운동은 국가 권력의 통치 대상이자 시장 이윤의 상품화 대상이 되어버린 지역을 생명활동의 장으로 복원하고 창조해내기 위한 일체의 노력이다.

생명운동으로서 지역을 되살려내기 위한 노력들은 경제, 사회, 생태적으로 다양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산 기술과 생산기반을 토대로 지역 자립적인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자산의 역외(域外) 유출을 최소화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우애와 협동의 원리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보와 권력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순환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 생태계와 생물자원들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고 물질과 에너지의 지역적 순환 체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역에서 자원과 정보, 권력이 순환하고 생산과 소비, 여가 활동을 포함한 생활의 전 과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현재와 미래 세대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살 맛 나는 삶터를 만드는 것이 지역살림운동이 해야 할 일이다.

### • 살림의 주체들이 지역에서 펼쳐가는 운동이다.

지역살림운동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살림살이 주체들이 자발적인 참여자가 되어 자신들의 삶터를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권력과 자본, 정보를 가진 영향력 있는 집단이 해결해 주도록 촉구하는 ‘요구형 운동’이나, 해결사로 자임한 사람들에게 맡겨 버리는 ‘대변형 운동’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내거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창조형 운동’에 가깝다.

지역살림운동의 힘은 살림의 주체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낸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보람과 자신감을 얻는 과정에서 나온다. 따라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살림의 주체들이 참여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함께 느끼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역살림운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 • 살림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운동이다.

살림의 시대를 맞아 성별과 계층, 세대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똑같이 존중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사회를 우리들의 삶터인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점에서 지역살림운동은 ‘함께 살림’(共生) 이면서 ‘서로 살림’(相生)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관련해서 한살림은 일찍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넘어 유기농산물 직

거래를 통해 도농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넘어 생활협동운동의 영역을 확장시켜 왔다.

지역살림운동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동의 힘으로 생활 속의 필요를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를 공동으로 생산해 내는 일을 힘 있게 펼쳐나가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은 살림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살림과 지역살림운동과의 관계를 보면, 한살림에 기반 하되 한살림의 울타리를 넘어, 먹거리에 기반 하되 먹거리 영역을 넘어, 조합원 활동에 기반 하되 이웃과 지역사회와 폭넓게 만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 4. 한살림운동의 창조적 진화, 지역살림운동

한살림은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도농 상생의 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문명 전환의 기틀을 만들고자 했다. “생명이 생명답게 활기차게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 지역의 협동적 삶과 생명경제를 회복하고 호혜의 관계망을 확장하면서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 그것을 통해 산업문명을 극복하는 새로운 생명의 문명을 만드는 것”<sup>10)</sup>이 바로 한살림이 걸어왔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살림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기준을 바꿔 놓았고, 밥상의 안전을 지키고 무너져 가는 농촌을 살리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생산지 방문과 단오행사, 가을걷이 체험행사 등을 통해 농촌과 도시,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했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살림의 현장에서 물품 이용을 통해 만난 이웃들과 함께 공부하고 두부와 비누를 만들면서 생활과 가치를 나누는 활동들을 펼쳐 왔다.

지역살림운동은 ‘지역으로부터 희망 찾기’이자 ‘지역에 기반한 희망 만들기’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한살림 활동들 속에 자리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살림운동’이라고 부를 때는 기존의 조합원 활동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한 문제의 식들이 담겨 있다.

25년 전 한살림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sup>10)</sup>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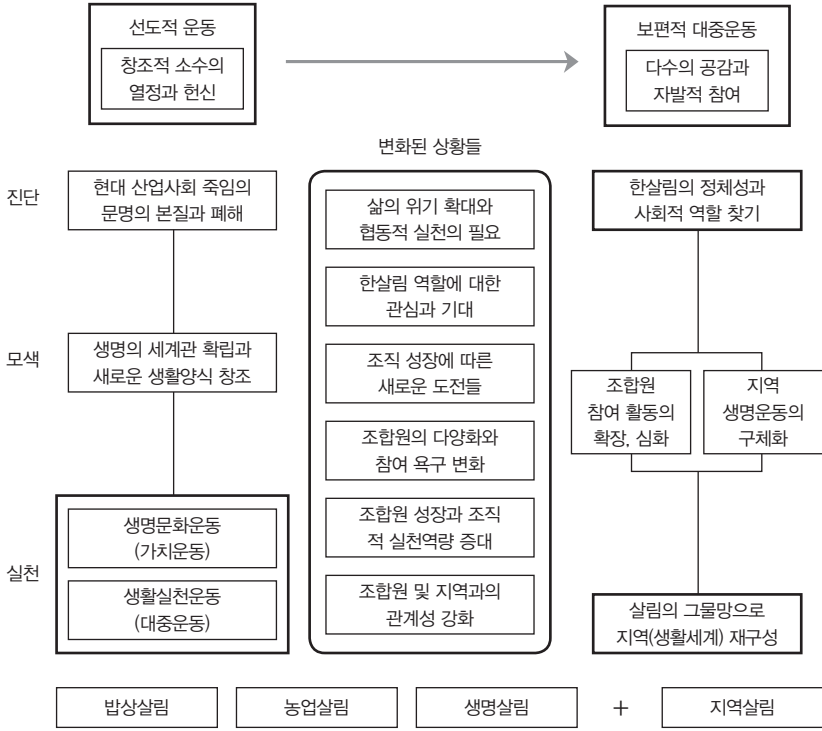
한살림을 둘러싼 안팎의 조건과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한살림 또한 조직 규모의 확대와 함께 대중적인 실천 조직으로 변모해 왔다. 경제위기와 생태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의 상황에서 삶의 질은 물론 생존 자체도 점점 더 불확실해지면서 개별화 된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의 원리로 다가와 있다. 그만큼 한살림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살림은 조합원들로부터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과 밀착해서 활동의 소재를 다양화 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감으로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가능성의 영역들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한살림이 지역살림운동을 하는 이유다.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조합원 활동의 영역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역살림운동은 물품이용을 매개로 조합원의 관심과 필요를 찾아서 연결시켜주고, 직거래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조합원들이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주제와 영역들을 발굴하고, 협동의 원리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들고, 지역사회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한살림운동의 창조적 진화로서 지역살림운동



• 생협으로서 물품과 사업이 가진 의미를 지역살림운동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생협으로서 조합원은 일차적으로 물품을 통해 한살림과 관계를 맺는다. 조합원으로서 물품 이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의 원리로 생명의 먹거리를 나누는 기본 활동으로, 한살림 운동의 현실적 기반이자 토대이다. 물품 이용이 단순한 소비 행위로 머물러서는 창조적인 힘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물품의 이용과 구매 활동 속에 담긴 사회적 공공성과 창조적인 의미를 조합원의 눈높이로 분명히 하는 것은 운동과 경영, 사업과 활동을 함께 해 오면서 축적해 온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조직적 경험들을 지역살림운동으로 연결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원의 특성과 필요들을 기초조직 활동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은 한살림을 통해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생활의 필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녀 육아와 교육, 복지, 환경 등 지역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생활권 가까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 자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필요와 욕구들을 잘 읽어서 조합원 기초조직 활동으로 담아냄으로서 지역살림운동의 실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마을모임, 소모임 등 조합원이 참여하는 기초조직 활동을 통해 이웃을 만나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갈 때 지역살림운동도 보다 힘을 가질 수 있고 내용적으로도 더욱 풍부해 질 수 있다.

**• 지역살림운동은 조합원활동의 새로운 확장이자 한살림운동의 창조적 진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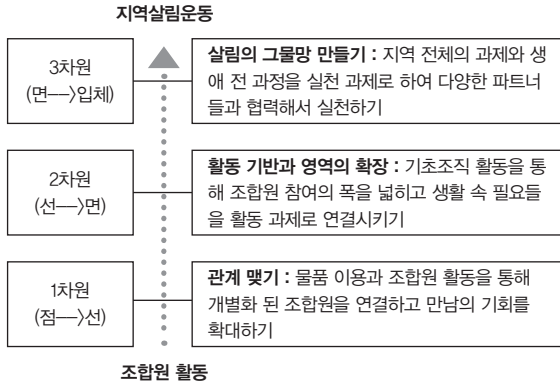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하나’ 이면서 ‘전체’인 ‘한’의 의미 그대로, 먹거리에 기반하되 먹거리를 넘어, 한살림에 기반하되 한살림을 넘어서는 지역살림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살림이 집중해 온 먹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온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살림의 영역들을 찾고 활동 과제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조합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과제들을 민감하게 읽어내서 한살림 조직 전체의 실천 과제로 담아내는 것으로, 조합원 활동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내는 길이기도 하다.

지역살림운동으로 조합원 활동을 지역사회로 확장시켜나가는 방식과 경로는 다양하다. 조합원 기초조직 활동을 확장하거나, 워커즈 등 새로운 영역을 만들거나, 지역사회의 관련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실천 영역을 개발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만의 과제일 수는 없다.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험과 지혜를 나눌 때 시대적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살림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운동의 창조적 진화이자 조합원활동의 새로운 확장이다. 개별화 된 조합원들이 물품 이용을 통해 한살림과 관계를 맺고 조합원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만남을 이어가는 단계로부터 시작해서(점 → 선), 다양한 조합원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폭을 넓히고 활동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가는 단계를 거쳐(선 → 면),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삶의 전 과정과 생활 전체의 필요들을 조직해서 지역사회 전체를 살림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나가는(면 → 입체) 종합적인 실천 운동이 바로 한살림이 지향하는 지역살림운동이라 할 것이다.

〈그림 3〉 조합원 활동과 지역살림운동





## Ⅱ. 지역살림운동 함께 하기





## II. 지역살림운동 함께 하기

지역살림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위해’(비전과 목표), ‘누가 앞장서서’(주체), ‘어떤 내용으로’(영역과 유형), ‘누구와 함께’(파트너), ‘어떻게’(과정과 방식) 펼쳐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살림운동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도전과 과제), 한살림은 ‘어떤 준비와 지원 노력이 필요한지’(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 1. 누가 하는 거지?

지역살림운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가는 활동이자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는 지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생활하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 나아가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 모두가 해당된다. 또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조건에는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서로 믿고 정을 나누는 이웃관계,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배우고 치료받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생활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지역살림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바람직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부터 살림의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을 보다 근본적으로 폭넓게 변화시켜낼 수 있는 주체들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지역살림운동은 누가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문제에 당면한 당사자들 스스로가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자발적인 운동이 지역살림운동이다. 결국 지역사회 구성원들이야말로 지역에서 문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이자 해결에 앞장서야 할 주체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스스로를 주체 인식하고 해결에 나서지는 않는 것이 쉽지 않다. 그만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일단 가능성을 가진 '잠재된' 주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역할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주체화' 과정이 필요하다.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운동을 통해 사람이 변화하고 사람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낸다. 지역살림운동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체화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으로 결실을 맺는다.

지역살림운동은 누가 하는가? 누가 먼저 시작해서 길을 열고, 한 걸음 앞서 잠재적 주체들이 자기 역할을 찾아 가도록 안내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

누구보다도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과제에 대해 자신의 문제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줄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찾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기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울 '주체의 상실' 시대로 부르기도 한다. 봉건주의와 전체주의에 억눌려 있던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이 또다시 돈과 권력의 힘에 눌리고 경쟁과 소외로 파편화 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이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은 '주체의 재발견', '주체의 주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해서 한살림운동으로서 주체에 대한 인식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먼저 생명운동으로서 주체는 그 자체로 살아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주체이면서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관계’하는 주체다. 이것을 지역살림운동과 연결시켜 보면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지역 및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찾아나가는 개방적이면서 창조적인 주체의 확장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생활협동운동으로서 주체는 공통의 사회경제적 필요와 생활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합원들이다. 즉 조합원들이야말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의 책임 주체이며 그 성과에 대한 권리의 주체다. 여기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잠재적 주체들이다.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은 생명운동으로서 주체에 대한 인식과 원리를 바탕으로 생활협동운동으로서 조합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사회로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살림운동은 조합원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에 공감하고 활동에 함께 하는 조합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의 영역들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살림운동이다.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당면한 문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살림운동의 주체와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안전한 먹거리 운동은 물론이고 환경, 복지, 교육, 자치 등 지역사회의 생활 속 다양한 필요와 과제들을 협동의 힘으로 함께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주체들의 역할과 내용도 변화되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조합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역살림운동의 주체가 되고 파트너가 되어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주체화’

과정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조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살림운동을 위해 활동가와 실무자를 비롯한 한살림 구성원들 각각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1) 활동가의 역할

한살림이 지역살림운동을 펼쳐감에 있어 활동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가 조합원이면서 다른 조합원들이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찾아나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살피고 돕고 이끌고 함께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활동가이기 때문이다.

한살림 조합원들 다수는 생활인이자 주부로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활동가도 예외가 아니다. 그만큼 활동가는 조합원들과 스스로없이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통된 생활의 경험과 대화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만큼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활동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 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활동가다.

지역살림운동 조직가로서 활동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함께 할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어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할 사람을 발굴해서 조직하고 공동의 실천으로 안내한다.
-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해서 활동 과정으로 연결한다.

- 문제 해결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
- 문제 해결에 함께 할 파트너들을 찾아 역할 분담을 통해 연대한다.
- 축적된 활동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활동의 비전으로 연결한다.

이처럼 활동가의 역할은 종합 예술에 가깝다. 그만큼 활동가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역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활동가들이 지역살림운동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2) 실무자의 역할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역살림운동으로 연결시켜내는 데 있어 실무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실무자는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비전과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하는 조직의 얼굴이다. 그만큼 협동조합 조직체에서 부여되는 역할 수행과 함께 지역살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직 원리로서 생활협동조합이 가진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지속가능한 유지 및 운영에 있어 책임이 크다. 실무자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고 조합원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과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협동 조직체로서 조직이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들이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이면서

도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살림운동에서 실무자의 역할은 의결된 사안의 집행자 또는 업무 수행자로서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역살림운동에서도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공동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실무자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인 힘을 바탕으로 지역살림운동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과 함께, 지역살림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도록 이어주고 함께하는 ‘매개자’이자 ‘실천가’로서 역할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시대의 변화와 흐름들을 잘 읽어내서 지역살림운동의 사업과 활동 과제들을 찾아내고 한살림운동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연결시켜 내는 ‘기획자’ 역할도 실무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살림운동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필요들을 발견하고 성장 과정을 통해 역할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진실 되게 경청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 마음을 열고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하게 된다. 이점에서 실무자는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과 조직,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들로부터 필요한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연결시키고 모아내서 공동의 자산으로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

### 3) 조직의 역할

‘조직’(組織)은 말 그대로 씨줄과 날줄이 서로 만나 조밀하게 만들어진 그물, 네트워크다. 여기에는 그물코도 있고 여백도 있다. 사회적 의미로서 조직은 원자화 된 개인들이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가는 협동체를 말한다. 따라서 조직은

사회 집단으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만큼, 안팎의 요구와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앞서 적응해가는 책임과 함께, 개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럿이 함께 뜻과 힘을 모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에서 조직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은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명살림의 가치와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책임 있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지역살림운동을 책임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살림 차원에서 조직적인 전망을 세우고 체계적인 역할과 지원 방안들을 단계별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그동안 한살림이 지향해 온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가치에다 ‘지역살림’을 조직적 비전과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시켜내야 한다. 지역살림운동이 조직적 실천 과제로 분명히 자리할 때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실천 경험과 역할들이 서로 만나 협력의 시너지 효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살림운동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내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살림의 주체인 조합원과 활동가, 실무자들이 공동의 비전을 향해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관련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다양한 참여 기회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 ‘교육’은 중요한데,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해 가는 조직이야말로 생명력 있는 조직이며, 협동조합 원리로 보더라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단순히 물품 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의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에는 지역모임(햇살모임, 마을모임), 소모임, 분과모임, 위원회 등 한살림과 관련한 다양한 모임들이 있으며, 매장을 통해서도 이웃과 만남의 폭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활동가와 실무자들은 조합원을 만나는 일이 지역주민을 만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살림운동 주체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 과제로서 지역살림운동의 다양한 실천 영역들을 발굴하고 단계별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조합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역살림운동의 영역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살림을 포함하여 생협 단체들은 자녀(아이)들의 성장 사이클과 지역에서 조합원의 활동 사이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조합원의 활동 주기를 고려한 세대 간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혼이나 독신, 자녀가 없는 세대 등 가족 구성의 특성과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살림운동의 영역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살림운동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중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안팎의 변화와 흐름들을 진단하고 조합원, 조직,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지역살림운동지원센터’와 대안적인 활동 영역들을 인큐베이팅 해 주는 ‘지역살림기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 **4) 지역살림의 파트너들**

한살림이 지향하는 지역살림의 목표는 지역사회를 ‘살림의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개인과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살림을 한살림만의 노력으로 다 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위와 주체들이 지역살림에 관심을 가

지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살림의 그물망도 더욱 촘촘하게 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살림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들을 찾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동하도록 하는 협동조합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길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속에서 등장한 ‘신세대 협동조합’이 강조하는 것도 결국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행동하고 서로 책임지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천의 필요성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살림의 과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주체들이 공동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역에서 유사한 활동을 펼치면서 협동 보다는 경쟁이 발생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지역사회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살림의 과제들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혹 혼자 힘으로도 해결가능한 일이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공동의 성과와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한살림이 지역살림을 위해 함께 할 협력의 파트너들은 다양하다.

우선 한살림처럼 먹거리를 주요한 활동의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협

동조합(이하 생협)들이 있다. 지역 차원에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들이 서로 협력하여 학교급식이나 식생활안전과 같은 공통의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다. 나아가 먹거리 외에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 기반들을 가진 협동조합들 역시 지역살림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에 대한 전망도 바로 동종(同種)의 협동조합은 물론 다른 서른 영역의 이종(異種)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망을 가지면서 지역살림 활동을 펼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한편, 협동조합 외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 비영리단체들 역시 지역살림의 중요한 파트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익(公益)의 기능과 한살림을 포함한 협동조합 영역이 가진 공익(共益)의 기능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지역의 생명력도 되살아날 것이다.

나아가 지역살림 운동이 더 욱 체계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기반도 필요하다. 이점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정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 의회의 영역도 지역살림의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통해 ‘지역살림의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살림운동을 위한 한살림과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및 연대방식들은 다양하다.

먼저 한살림이 직접 필요한 것을 조직하고 만들어내서 함께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한살림 조직 활동을 확장하는 것과, 새로운 영역들을 분화시켜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된다. 또 다른 것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필요한 것을 공동으로 만

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기존의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는 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와 모금이나 회비,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한 참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지역살림운동은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다. 그만큼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동과 연대, 공생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표 1〉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연대활동이 가지는 장점과 과제

장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객관화 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준다</li> <li>•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의 성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li> <li>• 개별이 할 때 보다 연대를 통해 활동의 영역과 범위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li> <li>• 각자의 서로 다른 능력들이 만나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li> <li>•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li> <li>• 상호 학습을 통해 참여 주체들 스스로 의식의 변화와 역량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li> <li>• 협동의 경험을 축적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를 지속시키는 힘을 갖추게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협력의 파트너(사람, 단체)를 잘 찾아낸다</li> <li>• 낯선 상대(사람, 단체)와 함께 한다는 부담을 덜고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한다</li> <li>• 조직과 개인 간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li> <li>• 단체별 고유의 활동과 연대활동 사이에 균형점을 잘 찾도록 한다</li> <li>• 연대의 목표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간다</li> <li>• 연대활동의 성과는 참여 주체들이 서로 배려하여 함께 나누도록 한다</li> <li>• 연대의 경험을 잘 살려서 네트워크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li> </ul>

## 2. 지역살림운동 이렇게

### 1) 지역살림운동의 고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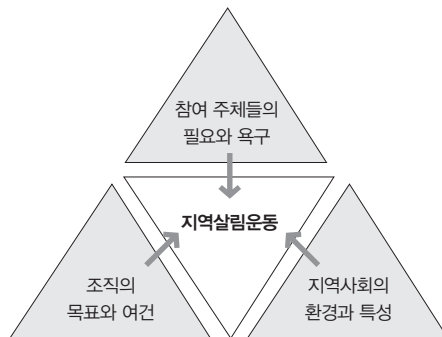
지역살림운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참여 주체들의 필요와 욕구’가 있다. 지역살림운동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욕구들이 지역살림운동에서 다루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운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활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환경과 특성’이 있다. 지역살림운동의 내용과 방식들이 해당 지역의 현실과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어야 운동을 통한 노력이 구체적인 변화나 성과들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조직의 목표와 여건’과 맞아야 한다. 지역살림이 운동으로서 방향을 놓치지 않고 책임 있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조직적 체계가 필요하며, 그럴 때 운동의 성과가 조직의 경험과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 실천의 기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살림운동의 방향과 과제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지역살림운동의 고려 요소



## 2) 지역살림운동의 원칙들

지역살림운동이 지역사회의 조건과 조합원의 필요와 밀착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지속적으로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혀 나간다.

지역살림의 과제를 조합원과 함께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심있는 사람, 과제에 영향 받는 사람들은 최대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무관심이나 생각의 차이, 확신의 부족 등으로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후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들을 단계별로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 수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특히 소통을 방해하는 전문용어 사용은 피하고 생활의 언어로 이야기 하고 가급적 만들어진 과제의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시각화하는 것도 소통에 도움이 된다.

### • 다양한 참여 동기를 인정하고 시작한다.

다양성을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자 참여의 질을 높이는 자원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동기와 욕구들(열망, 호기심, 두려움, 의무감 등)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책임 있게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각자 처한 위치와 조건에 따라 같은 문제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가 가진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적극 살려내서 연결하고 모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생활인으로서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역단체

들은 교육과 홍보, 자원동원의 경험들이 풍부하다. 한편, 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 기관은 풍부한 물적 기반과 함께 제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경제 주체들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 • 활동의 모든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희망이고 희망이 곧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지역 살림운동은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했는지,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성장하고 주체가 형성되는 것은 지역살림운동의 힘이자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 과제를 만들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이들의 역량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비록 목표로 한 일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남지 않으면 성공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이 남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 과정속에서 재미와 보람과 의미를 함께 맞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점에서 한살림이 가진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주부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마음의 벽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형편에 맞게 자발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 일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 좋아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만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 했구나’라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활동기들이 앞서서 이끌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주체와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다리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모아서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박하게 시작한다.

혼자 가는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이 걷는 한 걸음이 소중하다. 결과에 집착해서 서두르거나 역량을 넘어선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기대 수준을 높이기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 소중하다. 작은 성공은 보다 큰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필요를 조직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일상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이웃,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모두가 함께 시작하기를 기다기 보다는 필요를 느낀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으며,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래의 성공을 위해 시작부터 기록을 남기고 다양한 소통 과정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활동을 통한 경험들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물러 버리면 운동의 지속성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 • 고정 불변의 주어진 해답은 없다.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에 매여서도 안된다. 고정불변의 원칙은 없다. 오직 변하지 않은 사실은 '모든 것은 변화 한다'는 것이다. 변화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읽어내는 안목을 가지고 창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역살림운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소망들은

중장기적인 활동의 비전으로 연결시켜낼 필요가 있다.

**• 해결책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을 다른 누군가가 그냥 주지는 않는다. 함께 고민하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만큼의 해답이 나온다. 따라서 상식과 상상력을 가지고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법과 영역들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속에 바로 답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경험들을 적극 활용하고 연결시켜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살림운동은 단거리 육상이 아니라 마라톤이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일을 진행시키는 속도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속도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한숨 돌리고 잘 쉬는 것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3) 지역살림운동의 단계**

지역살림운동을 실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왜 하려고 하는가(목적) :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필요, 조직 목표에 대한 확인

둘째,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는가(주체) : 함께 할 주체와 제안자, 파트너 찾기와 연결

셋째, 언제 시작 하려고 하는가, 목표 시점을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시간계획)

넷째,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실천 기반, 자원 확보 등)

다섯째,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이해관계 등)  
여섯째, 어떤 단계와 과정을 밟아갈 것인가(전략과 비전)  
일곱째,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비용 및 효과 등)

### • 1단계: 지역 이해하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 특성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인구적인 특성, 공간적인 구조와 경제적인 특성,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주요 관심사, 지역사회의 강점과 약점, 지역사회의 관계망과 신뢰 기반,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등이 해당된다.

### • 2단계: 과제의 발굴

‘우리 지역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변화를 희망하는가’,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과제로 어떤 것이 있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 과정을 통해 지역살림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한다. 자신들의 관심과 필요와 결합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 • 3단계: 과제의 구체화와 실행 계획 수립

발굴된 과제들을 종합화 하고 구체화해서 지역살림운동의 비전과 연결시킨다. 이 과정에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발굴된 과제들 중에서 자체 역량으로 해결 가능한 것과 외부(행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과 중장기적으

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구분해 볼 필요도 있다. 한편, 과제를 실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필요한 자원들을 찾아 계획 속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 • 4단계: 과제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숙성시켜 내기

과제와 실행계획을 조합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교육과 토론회 등을 마련해 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과제라도 남성과 여성의 눈, 어른과 아이의 눈, 정상인과 장애인의 눈, 내국인과 외국인의 눈,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눈은 다를 수 있다.

#### • 5단계: 과제의 안정적인 실천을 위한 구조 만들기

토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역살림의 과제를 한살림의 조직 활동의 비전과 계획 속에 반영시켜 체계적인 실천 기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생활인들이 주체가 되는 한살림 조합원의 경우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조직이기 보다는 오랫동안 지역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유로움과 소속감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을 통한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해야 하는 지역살림 과제의 경우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행정, 의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원들을 공동의 실행 구조 속에 모아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살림만의 노력과 힘으로

지역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살림 안팎을 넘나들면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면서 활동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

#### 4) 지역살림운동의 영역과 내용

지역살림운동의 영역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며 다양하고 중층적이다. 조합원과 햇살지기, 운영위원, 지부 활동가와 임원 등 ‘참여 주체들의 역할’에 따라, 지부기초조직과 광역지부, 연합조직 등 ‘활동 단위’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다루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도 지역살림운동의 영역은 달라지는데,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 장터, 교육 및 복지 문제, 지역자치, 생산지 일손돕기에서 부터, 심지어는 아프리카 생산자 돕기, 아이티 난민 돕기, 북한 어린이 돕기 등 국경을 넘어선 교류활동까지 확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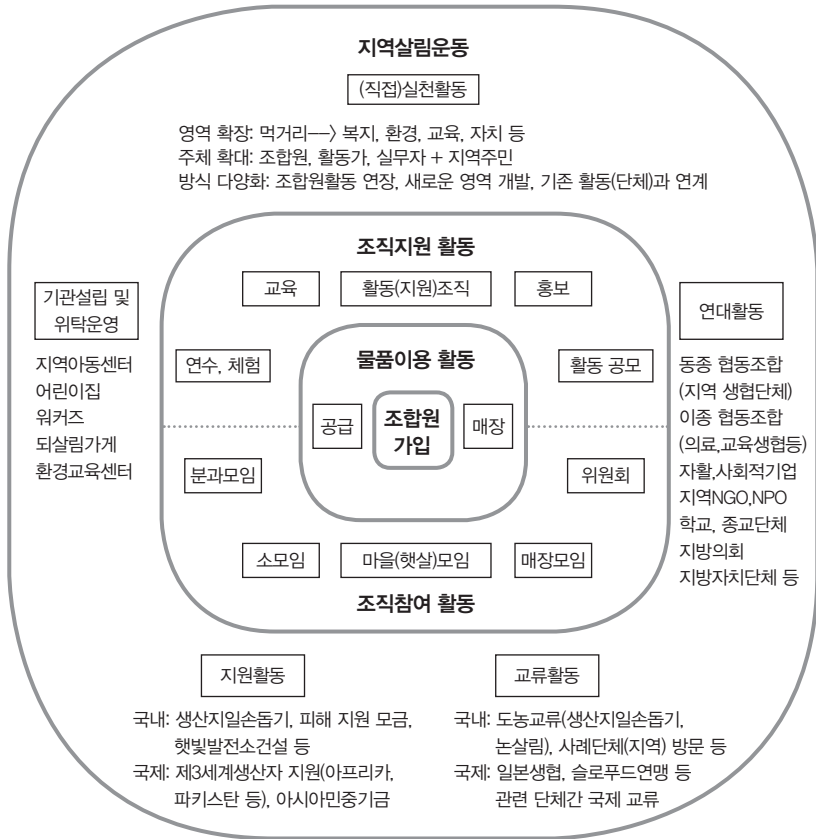
지역살림운동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립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지역살림과 관련한 활동들이 경제 활동과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이윤과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는 다른 가치와 논리로 작동하는 대안적인 경제 영역들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해서 한살림의 각 지역조직에서 조합원과 이웃들이 힘을 모아 ‘장터’를 열고, ‘되살림 가게’(recycle shop)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살림운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조합원 활동을 토대로 이웃과 보다 폭넓게 만나고 지역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다. 여기에는 조합원들로부터 제기되는 필요와 요구들을 민감하게 읽어내면

서 동시에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를 책임 있게 사회화 해 나갈 필요성이 함께 담겨 있다.

〈그림 5〉 지역살림운동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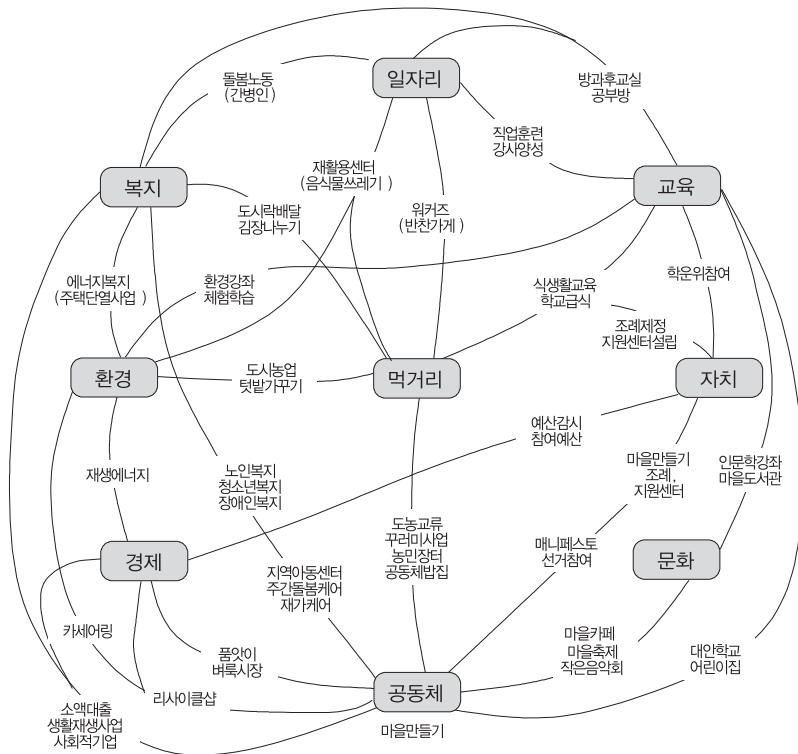


안전한 먹거리를 가난한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바람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조합원과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안전한 반찬가게와 식당, 빵집 등에 대한 협동 사업을 실험하고,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

하여 식생활교육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제 조합원들의 활동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조합원끼리 공부하던 식생활 안전 교육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농촌에서 일손 돕기 하던 경험들이 도시텃밭으로 이어지고, 조합원에게만 공급되던 물품이 어린이집과 학교로 공급하게 되기도 한다. 조합원들은 지역에 자신들의 조그마한 활동 공간들을 확보하고 지역 사람들과 수다를 나누며 소박하고 검소하게 협동하는 삶을 꿈꾸고 만들어가고 있다.

〈그림 6〉 지역살림운동의 내용



한살림이 만들어가는 지역살림운동의 모습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2009년과 2010년 두 해 동안 조사한 ‘지역살림 활동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사례들은 활동의 내용과 범위, 방식 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2009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1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면, 2010년에는 서울, 경기남부와 함께 강릉, 원주, 여주·이천·광주, 청주, 대전, 경남,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된 14개의 소중한 사례들이 조사되었다.<sup>11)</sup>

활동 내용과 방식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 졌다. 2009년에는 ‘장터’와 ‘마을공동체’, ‘사회실천 활동’(복지, 급식, 환경, 교육 등)이 소개되었다면, 2010년에는 여기에다 ‘도농공동체’, ‘지역자치’와 같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마을모임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 영역을 마을과 지역사회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이나,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기획·추동하고 지역 한살림이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모습,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힘을 모아 도농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습, 지역사회 단체들은 물론 행정을 지역살림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시켜 조례 같은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해진 활동 방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

<sup>11)</sup> 조사된 사례들은 지역으로부터 대표적인 활동으로 추천된 것들이다. 따라서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사례 조사에서 소개되지 않은 지역살림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한살림이 밑거름이 되어 펼쳐지고 있다.

〈표 2〉 지역살림운동의 다양한 모습들 (2009-2010 사례조사 결과)

<p>2010년</p>	<p style="text-align: center;"><b>11개 지역(지부)에서 14개 사례(전국)</b></p> <p><b>마을만들기 활동, 더불어함께 짜나가는 살림의 그물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지역 당감·개금 마을모임과 마을문화 만들기 (한살림부산)</li> <li>• 마을모임에서 키운 아름다운 나눔 (한살림강릉)</li> <li>• 꽃별어린이집을 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한살림부산)</li> <li>• 어린이날 행사로 맺어진 지역사회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한살림서울 북부지부)</li> </ul> <p><b>장터 활동, 경쟁과 이윤을 넘어서 펼치는 호혜 시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야미 마을 생태장터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li> <li>• 마을을 나누는 나눔장터 (한살림강릉)</li> <li>• 강동 벼룩시장(야외 나눔터) (한살림서울 동부지부)</li> </ul> <p><b>도농공동체 활동, 교육과 교류를 통해 만들어가는 도농공동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살림 어린이 농사학교 (한살림여주이천광주)</li> <li>• 구량천공동체 직거래 체험단 사례 (한살림대전)</li> <li>•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텃밭모임 활동 (한살림청주)</li> </ul> <p><b>지역자치 활동, 제도의 장벽을 넘어 확장해 가는 지역살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 식생활교육위원회 활동 (한살림원주)</li> <li>• 창원시 위탁사업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례 (한살림경남)</li> <li>• 지역단체들과 연대한 학교급식운동 (한살림경기남부 안양지역)</li> <li>• 강동 주민자치네트워크를 통한 매니페스토 활동 (한살림서울 동부지부)</li> </ul>
<p>2009년</p>	<p style="text-align: center;"><b>8개 지역(지부)에서 11개 사례(수도권지역)</b></p> <p><b>한살림, 지역과 만나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장터 활동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li> <li>• 우리동네 초록장터 (한살림경기남부 수원지역)</li> <li>• 일월수서 어린이 벼룩시장 (한살림서울 남부지부)</li> <li>• 해오름 공동체의 마을만들기 (한살림고양파주)</li> <li>• 기후변화 대응 활동 캔들라이트 (한살림경기남부 과천시지부)</li> <li>• 숲살림 활동 (한살림서울 북부지부)</li> </ul> <p><b>함께 만들고 나누는 지역살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맑은하늘 방과후 교육공동체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li> <li>• 학교급식 활동 (한살림서울 동부지부)</li> <li>• 장애인 관련 연대활동 (한살림서울 동부지부)</li> <li>• 지역사회와 결합한 지역아동센터 (한살림서울 남서지부)</li> <li>• 지역복지 활동 (한살림서울 북부지부)</li> </ul>

주목할 부분은 이런 활동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살림의 주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살림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협동적 실천의 경험을 축적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 5) 생애주기와 지역살림운동

‘운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창조의 과정이다. 따라서 변화의 양상에 따라 운동의 내용과 형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지역살림운동 또한 개인과 조직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실천 과정으로 연결시켜내야 한다. 시간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통찰력은 다양한 주체들을 모아내고 새로운 활동으로 연결시켜 내는데 있어 중요한 힘이다.

### • 개인의 생애주기와 지역살림운동

초기에 유효했던 운동 내용과 방식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기존의 경험들이 관성화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읽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참여 주체들을 둘러싼 인식과 환경의 변화들을 잘 읽어내서 운동의 기획 과정에 적극 담아내야 한다.

한살림의 경우 아이들(자녀)의 성장 사이클과 지역에서의 활동 사이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살림 조합원의 많은 경우는 주부로서 아이가 어릴 때 한살림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이가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까지는 가까이서 돌봐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활동 시간과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육아와 건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조합원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하나가 자녀 양육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시간을 자기실현에 활용하면서 이것을 한살림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라면, 다른 하나는 자녀 교육과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해서 더욱 바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한살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던 조합원이 활동의 공백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한편, 25년의 한살림 역사만큼 성인이 된 자녀를 둔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조합원이 가지는 필요와 욕구는 또 다른 만큼, 이들이 가진 경험들을 지역살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조합원 노동 영역으로서 상근 활동가나 워커즈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살림과 관련한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역살림운동의 영역들을 적극 개발해야 할 때다.

이처럼 참여 주체들의 나이와 역할, 경험의 영역 등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살림운동의 방식과 내용, 우선순위 등에도 변화를 주어서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다양한 실천 영역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비혼이나 독신, 자녀가 없는 세대 등 가족 구성의 특성과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들을 지역살림운동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 • 조직의 생애주기와 지역살림운동

생명체처럼 대부분의 조직은 새롭게 만들어져서 성장하고, 통합 또는 분화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 또는 사멸해 가는 과정을 거친다. 한살림 역시 지역에서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성장기를 거쳐 안정과 성숙 단계를 거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차원으로 분화해 간다. 따라서 조

직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과의 관계 맺음 방식과 활동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 조직의 단계별 발전 과정과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지역 조직이 경험했던 변화와 오늘날 지역 조직이 경험하는 변화는 그 속도와 내용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오늘날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들의 경우 한살림이 축적해 온 조직적 경험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조직과 운동의 성장 및 변화 과정을 ‘한살림서울 동부지부’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살림서울 동부지부의 경우 1996년 하반기 공동체로 물품을 공급받던 조합원들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모임(현 햇살모임)을 만들었다.

모임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학습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생활 실천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지역의 생태자원(둔촌습지)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켰다.

이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모여서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합원 대표들이 운영위원이 되어 지부 창립을 준비했다. 그 성과로 1998년 2월에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파트 상가 안에 매장과 지부 공간을 만들었다.

지부 창립 초기에는 주로 조합원 기초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어린 아이를 둔 조합원들은 생태교육을 받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갔다.

지부 창립 이후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연대 활동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다. 이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서 한살림 먹거리를 홍보하고 나누는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환경분과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기금마련 재활용 장터를 매월 실시해서 지역의 독거노인 돕기와 방과후 어린이집 후원 활동들을 펼치게 되었다.

2000년부터는 홍보장터를 통해 지역과 만나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도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한살림과 조합원과의 관계도 다양해지고 지역과 만남의 폭도 조금씩 넓어졌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 또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3년에 사단법인 한살림에서 서울 조직이 분화되면서 지역에서도 조직 체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조합원 활동의 편리를 위해 명일매장 공간 안에 있던 지부사무실을 분리시키기 위한 출자금 증자운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증자운동을 이끌었던 지부 운영위원들도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다.

지부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상근 활동가도 한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나면서 지부 차원에서 활동 기획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도 길러졌다. 지부 주도로 생태 캠프도 운영하고 자매결연지(공근 생산지)와 함께 직거래 장터도 만들었다. 지부 활동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의 수도 늘어나고, 조합원 활동에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조합원노동의 영역도 확장되었다. 또한 활동가들에 대한 순환 체계가 마련되면서 조합원 활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구 단위 활동지부 만으로는 서울전체 조합원의 욕구를 담아내기에

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조합원이 한살림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사업과 활동을 통합한 광역지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전 활동지부 당시에는 조합원 활동만 하고 공급을 비롯한 사업 부문은 별도의 단위(서울본부 사업부에서 매장과 공급)에서 다뤄졌다면, 2006년 7개 광역지부로 서울이 조직재편 되면서부터 사업과 활동 단위의 협력이 가능해졌고, 활동 범위와 연대활동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활동가 사무국장 체제에서 실무중심 사무국장 체제로 바뀌고 팀별 협력 체제도 강화되었다.

한편, 지부 차원에서의 활동경험 축적은 지역 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에서도 확인된다. 동부지부 경우 지역의 공통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한살림을 포함한 단체들 간 연대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초기에는 이슈를 중심으로 단체들 간에 한시적으로 만나는 활동이 많았으며, 활동 내용도 주로 소외 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다. 그후 2005년부터 지역차원의 연대 모임인 '강동넷'(구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을 만들어 매월 모임을 정례화 했다. 연대활동으로 지역활동 의제를 발굴하고, 생산지도 함께 가고, 청소년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강동넷의 참여단체 활동가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활동으로 이어졌다. 한살림은 물론 지역언론매체와 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강동구 행정감사 모니터링과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도 하고, 그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2010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매니페스토 활동을 통해 정책 감시 및 제안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강동넷과 강동

구청의 협력으로 동부지부 한살림이 주최한 강동 벼룩시장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단체들이 힘을 모아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사업을 계기로 1318 청소년 놀이터(방과후 공부방)도 운영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 했던 활동 경험을 가지고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세움터’(세상을 움직이는 터전)라는 활동도 하고 있다.

한살림은 다양한 분과모임과 햇살모임, 소모임 활동을 통해 조직활동의 경험 단단하게 축적해 오고 있다. 매장 활동가들 중심으로 매장 모임도 만들고, 활동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는 기준도 낮췄다. 예를 들어 생산지 방문의 경우 비조합원이나 지역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2009년 광역지부로 창립한 후 ‘생산하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논살림 활동도 펼쳐나갔다. 생산지에 논 생태계 조사활동을 하면서 생산지가 마을과 공동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족 요리대회를 열어 이후 요리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종합해 보면 한살림서울 동부지부의 성장 과정을 보면, 지부 설립 및 조합원 활동을 다져가는 시기(초기, 1996-2000)를 거쳐, 조합원 활동을 지역활동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펼치고(안정기, 2000-2004), 사업과 활동을 통합한 지부조직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다양한 파트너들과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성숙기, 2005-현재).

한편, 이런 과정을 통해 활동 영역과 내용도 다양하게 확장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교육 활동에 집중했다면 점차 ‘복지

활동'(장애인관련 활동, 청소년 봉사활동 등), '대안경제 활동'(워커스쿨  
렉티브 '착한밥상 맛깔손', 자매결연지 생산자물품장터, 강동벼룩시장  
등), '지역자치 활동'(학교급식조례, 식생활교육, 예산감시 및 정책제안  
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쳐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부의 규모도 많이 달라져서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공급액 155억, 조합원 19,652세대의 규모로 성장했다. 또한 조합원 기  
초조직 활동으로 햇살모임 19개, 분과모임 7개, 소모임 10개, 매장모임  
6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지역에서 이  
루어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역량이 놀랄 만큼  
성장했고, 지부 출신 활동가들이 한살림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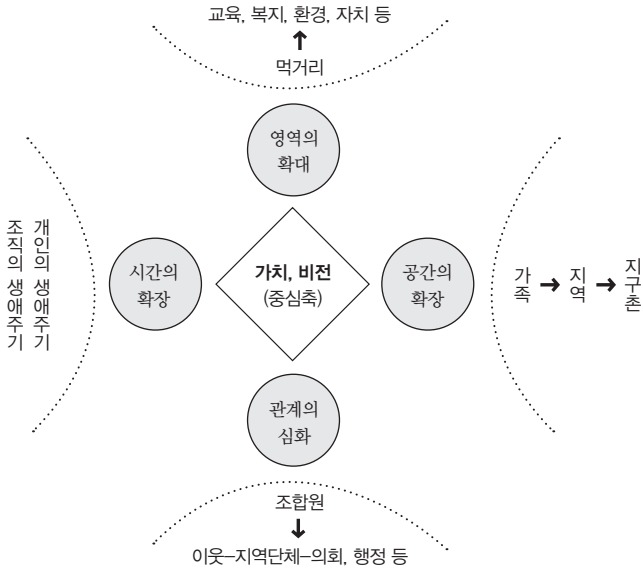
#### 1) 지역살림운동의 방향

지역살림운동은 지금껏 한살림이 추구하고 활동해 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확장해 가는 것이다. 즉 지역살림운동은 조합원 활동을 ‘점’에서 ‘선’과 ‘면’을 거쳐서 ‘입체’적으로 차원 변화를 시켜서 개인과 조직의 창조적인 발전을 돕고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점에서 지역살림운동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중심축’으로 해서, ‘공간’의 측면에서 활동 영역을 가족 차원에서 지역사회로, 나아가 국경을 넘어 지구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시간’의 측면에서 활동 내용 속에 개인과 조직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영역’의 확대를 통해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교육과 복지, 환경, 자치 등 다양한 삶의 의제들을 다루어 나가고, 동시에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들과도 ‘관계’를 심화시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처럼 지역살림운동이 종합적인 전망 속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펼쳐졌을 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동으로 생산해내고 당면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살림의 가치로 재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지역살림운동의 방향



## 2) 도전과 과제들

### • 서로 다른 흐름들의 균형 있는 연결과 결합

시간이 지나면서 한살림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한살림과 나머지 생협들 간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살림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하는 과제인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살림운동을 더욱 확장시켜나가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은 구심력과 원심력, 수렴과 확산이라는 다소 상반된 흐름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 몇 가지 과제들을 살펴보면,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해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노력’과 ‘조합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들을 잘 읽고 조직 활동 속에 담아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역 속으로 확산시키는 과정’과 ‘지역사회가 당면한 생활의 과제와 개인의 관심사들을 한살림 내부로 수렴해 오는 과정’이 서로 연결되며, ‘한살림이 펼쳐온 조합원 활동들을 지역살림운동이라는 그릇으로 담아내는 활동’과 ‘지역살림이라는 보다 확장된 인식과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활동’이 동시에 펼쳐질 필요가 있다.

### • 인식과 활동의 단절을 넘어선 유연한 확장

지역살림운동이 지역과 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한살림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절적이고 폐쇄적인 중심성을 경계하면서 인식과 활동의 영역을 유연하게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살림이 펼치고 있는 직거래 사업은 유통 과정의 단순화와 효율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하지만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호혜와 협동의 원리로 경제적 대안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윤과 효율을 강조하는 ‘경제 중심주의’에 빠져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한살림은 생명의 가치로 소비의 영역을 조직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생산과 생활의 영역을 재조직하는 일을 해 왔다. 한살림이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는 생산과 소비 영역의 단절이 만들어 낸 한계를 협동의 힘으로 극복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에서도 생산과

단절된 채 개별화 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소비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소비자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창조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합리적 소비의 차원을 넘어서 생산하고 창조하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생산의 영역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협동적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관계를 생산하는 일도 포함된다.

### • 자발성을 바탕으로 더불어함께 나아가기

지역살림운동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에 바탕한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 활동가는 조합원들로부터 한 발 정도 앞서서 자발적인 동의와 공감대 형성을 지원하고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으며, 한살림 역시 조합원 기초조직의 활동을 튼튼히 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점에서 조직과 활동가는 현실이 가진 조건과 이해관계에 매여서도 안 되지만 현실과 유리된 채 계몽적으로 너무 앞서 가셔도 안된다. 너무 아래쪽 바닥만 보지도 않고, 너무 높게 멀리만 보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과 조율이 필요하다. 긴 호흡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응시하되 한 두 걸음 정도 앞서서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이 활동가와 조직의 역할이다. 또한 활동 주체의 특성, 이슈의 성격, 지역적 여건 등에 따라 지역살림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과 경로들을 적극 만들어서 단계별로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

### •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연대와 협력

자족성이 높은 큰 단체들일수록 연대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살림의 경우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에

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서 외부와의 교류나 연대에 대해서는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을 위해서는 ‘조직 중심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협력 당사자들을 파트너(이웃단체, 지자체, 의회 등)로 만들어 연대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자발성과 신뢰에 기반한 따듯한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를 살림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나갈 때 지역살림운동의 목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살림운동을 위한 한살림의 연대와 협력의 방식들은 다양할 수 있다. 우선, 한살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조직하고 만들어낸 후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존의 한살림의 조직 활동을 확장하는 것과, 새로운 영역들을 분화시켜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필요한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에는 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와 모금이나 회비,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한 참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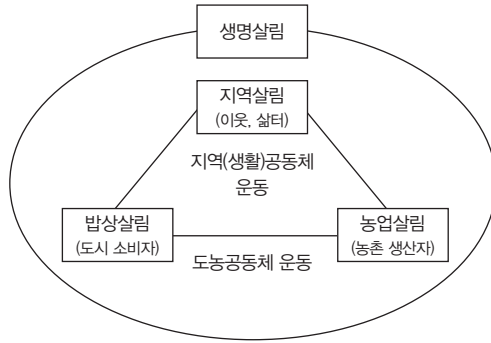
### 3) 조직 차원의 준비와 역할

#### • 지역살림운동에 대한 조직적 비전과 전망을 수립한다

지역살림운동이 현장에서 힘 있는 실천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조직의 비전과 활동 목표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한살림이 지향해온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가치와 연계해서 지역살림운동을 조직의 비전 및 활동 목표로 분명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관련해서 그동안의 한살림 슬로건에서 ‘생명살림’ 대신 ‘지역살림’을 포함시키고, ‘밥상살림’, ‘농업살림’, ‘지역살림’을 균형 있게 실천한 결과로서 ‘생명살림’의 목표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목표 가치를 재구성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그림 8〉 한살림 목표 가치와 지역살림운동



**• 지역살림운동을 조직별 사업과 활동계획 속에 반영해서 실천하고 평가한다**

한살림이 펼치고 있는 지역 조직별 사업과 활동계획 속에 지역살림운동이 주요 과제로 반영 되어서 예산과 인력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별, 영역별 활동 내용들을 지역살림의 눈으로 진단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후속 활동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 노력해 온 활동들을 지역살림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합원과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과 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

와 피드백 과정을 섬세하게 기획해서 활동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 지역살림운동의 지속적 실천을 위한 지원 체계를 조직적으로 마련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치지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먹거리를 기반으로 안정된 관계 맺음을 통해 활동해 온 한살림으로서는 지역살림운동을 통해 관계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 심화시키는 것이 분명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다. 지역살림은 조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망을 가지고 조합원, 활동가, 실무자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과 실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토대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밥상살림’ 운동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물론이고 워커즈 방식을 통한 반찬가게, 빵집 등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업살림’ 운동과 관련해서도 도시텃밭가꾸기, 꾸러미사업, 논살림활동, 도시농업과 도농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살림’ 운동의 역량을 키우고 실천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나눌 수 있는 ‘지역살림운동지원센터’ 또는 ‘지역살림기금’ 등 중간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 시설과 자원들은 조합원 출자금, 기부금, 사업 잉여금 또는 기타 수익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살림 스스로의 역량으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 행정이나 공공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필요한 역할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 지역살림운동 길잡이 자료들

### ■ 참고 도서 및 자료

- 오래된 풀뿌리운동의 고전 :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시민자치정책센터 저, 갈무리, 2002)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전신인 ‘시민자치정책센터’가 펴낸 책이다. 상반된 두 단어, ‘느리다’와 ‘질주’는 서로 어긋나 있다. 그러나 그 앞에 ‘풀뿌리’가 붙음으로써 풀뿌리의 본디 성질을 잘 드러낸다. 풀뿌리는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 함께 볼 만한 책 :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이매진, 2010)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의 속편으로 풀뿌리운동, 지방자치제도, 지역정치 이 세 가지가 이 책에 담고 있는 큰 틀거리다.”

- 풀뿌리에 대한 오래된 생각 :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라 간디 저, 김태어 옮김, 녹색평론사, 2006)

“1962년에 간행된 책으로 44년 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다. 그 동안 간디의 저작물 중, ‘마을자치’라는 주제로 쓴 글들을 발췌한 것이다. 간디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빌리지 스와라지의 개념과 풀뿌리의 가치 등이 잘 소개되어 있다.”

- 현장에서 배우는 조직론 : “주민조직 방법론”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2001)

“이 책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조직화의 ‘과정’을 잘 알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생생한 사례들이 양념처럼 쏙쏙 배치되어 있어서 주민조직화의 현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함께 볼 만한 책 : “주민운동의 힘 조직화”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지음, 2010).

“이 책은 사회변화를 꿈꾸며 주민조직운동을 전개하는 주민, 주민지도자, 주민조직가들에게 새로운 성찰과 도전을 던져줄 것이다. 우리 시대 사회변화의 중심인 지역과, 그 지역의 주체이며 당사자인 주민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 **일본 생활자 운동의 역사** :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요코다 가쓰미, 논형출판사, 2004)

“일본의 풀뿌리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요코다 카쓰미 씨의 책이다. 가나가와네트워크의 창립자이기도 하며 ‘참가형시스템 연구소’ 소장으로 재임 당시 쓴 것으로, 지역 현장에서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꾸러기는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 **지역, 여성, 그리고 초록** : “여성, 녹색세상을 말하다” (여성환경연대, 2005)

“여성환경연대 비정기 무크지로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글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엮었다. ‘환경’과 ‘여성’이 주요 테마지만, 구체적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운동, 자치운동의 눈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 **지역의 비전을 만들자!** :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만들기 참고 자료집”

(지역사회비전만들기기획위원회 엮음, 2005)

“삶에서 출발하는 대안적 지역비전을 만들자!’라는 부제가 달린 이 자료집은 2005년에 총 10여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정리된 자료집이다. 총 9개의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안내서이다.”

- **직접참여의 메카, 스위스** :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부르노 카우프만, 로프 뷔치, 나드야 브라운 지음, 이정옥 번역, 리북, 2008)

“스위스의 직접참여제도를 시민적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직접참여제도의 두 기동인 주민투표와 주민발의 제도에 내재된 정치적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풀뿌리 차원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피드백 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 **아나키즘과 풀뿌리는 동색** :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하승우 저, 그린비, 2006)

“크로포트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책. 분권, 지역, 공동체, 풀뿌리 등과 아나키즘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면서 풀뿌리와 아나키즘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랫동안 풀뿌리운동을 연구해온 저자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 **풀뿌리운동 조사보고서** : “달팽이가 달리기를 시작한 까닭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저, 2008)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운영위원들이 아홉 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연구보고서처럼 다소 딱딱한 글쓰기로 이루어졌지만, 풀뿌리운동의 대표 사례들이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또 발전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 **공동체운동의 힘!** : “반송사람들” (고창권 저, 산지니, 2005)

“공동체운동은 지방이나 시골에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 부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1997년부터 시작된 ‘반송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과 풀뿌리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찬찬히 감상해보자.”

- **주민참여제도 이해하기!** : “주민참여가이드북-주민직접참여 제도 실무매뉴얼”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 저, 2006)

“이 책은 주민 직접참여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았다. 직접참여제도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 **함께 볼 만한 책** :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주민참여가이드북’이 2006년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면, 이 책은 가장 최근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동네 주민들의 풀뿌리 이야기** : “치유와 키움, 기적의 풀뿌리 주민운동 체험기”

(정보연·김수경·이순임 저, 이매진, 2007)

“도봉시민회’ 활동을 했던 세 명의 생활인이 활동가로 성장했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놓은 책이다. 즐겁게 활동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수다를 떨면서 용기를 얻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 맺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담백한 글쓰기를 통해서 보여준다.”

- **괴짜 생활인의 도전!** : “가난뱅이의 역습” (마쓰모토 하지메 저, 김경원 옮김,

최규석 삽화, 이루, 2009)

“공짜로 살아갈 수 있는 서바이벌 생활 기술과 가난뱅이의 등골을 빼먹는 사회에 대항하는 반란의 노하우를 유머러스 하게 전달하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작은 삶의 처세술, 혹은 가난뱅이들의 무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 **예산 바로알기** : “예산을 보면 지역이 보인다” (오관영, 이매진, 2009)

“경력 10년차 예산감시운동가의 경험과 철학이 녹아있는 책이다.

조금 딱딱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주제를 여러 사례와 접목시켜 동네 예산의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며 설명하는 친절한 안내서다. 우리 동네 공간을 지키기 위한 예산감시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책이다.”

- **도시 공동체의 대표주자, 성미산 공동체** : “우린 마을에서 논다” (유창복, 또한나의 문화, 2010)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미산 공동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책이다. 공동체의 1세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저자의 경험을 따라서 마을의 역사를 탐방하다보면, 어느새 마을 만들기의 달인이 될지도 모른다.”

- **지역에도 헌법이 필요하다!** :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우치나카 에이스케 저, 이매진, 2008)

“이 책은 자치기본조례는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은이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고민한다면 한번쯤 보아야 할 책이다.”

-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을 담은 책** :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하승수 저, 후마니타스, 2008)

“10여 년 넘게 풀뿌리운동 현장에 착목해서 지역을 관찰하고 정리한 책이다. 그동안 행정과 제도 측면에서 협소하게 논의되어 온 지방자치의 현실을 민주주의와 풀뿌리적 관점에서 풀어쓰고 있는 이 책은 지방자치에 관련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지역운동의 종합예술, 참여예산의 모든 것** :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 (마리옹 그레 · 이브 생또메 공저, 박종철출판사, 2005)

“20년을 훨씬 넘긴 탄탄한 역사를 지닌 참여예산. 마리옹 그레와 이브 생또메는 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하는 정책이라고 칭찬하고, 포르투알레그리를 “민주주의의 수도”라고 호언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동맥이 근대 사회를 관통한다면 그 심장은 바로 ‘참여’에 있다고 말한다.”

※ **함께 볼 만한 책** : “참여예산, 제도가 아니라 주민이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저, 2008)

“참여예산제가 등장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를 탐방하고 작성한 책이다. 기존의

자료들이 정당과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면, 이 책은 바닥 공동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참여예산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보여준다. 풀뿌리 과정에서 참여예산제도를 다루고 있다.”

- **희망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 : “골목에 꽃이 피네” (정외영 저, 이매진, 2011)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펼쳐나간 생생한 활동 경험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관계를 맺고 힘을 키워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지역 활동가들에게 상상력과 용기를 주고 있다.”

- **한살림 조합원들은 지역살림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2009 수도권 지역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 (모심과살림연구소, 2009)

“수도권 지역 한살림 조합원 1,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보고서로,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필요와 욕구들, 조합원 참여 현황과 활동 내용 등을 지역살림의 눈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 **한살림이 만들어가는 지역살림운동 사례들** : “지역살림활동 사례집 2009”, “지역살림활동 사례집 2010” (모심과살림연구소, 2009, 2010)

“전국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지역살림활동의 사례들을 종합해 정리한 자료집으로 2009년, 2010년 각각 발간되었다. 2009년에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1개의 사례가, 2010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14 개의 사례들이 발굴·정리되어 소개되어 있다. 장터, 마을만들기, 복지, 자치 등 다양한 내용의 사례들을 통해 지역살림운동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 ■ 참고할 만한 사이트

- 풀내음(blog.grasslog.net)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공식 사이트로 자체 조사한 지역운동사례와 풀뿌리운동 관련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 참여예산 네트워크(joinbudget.net) :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와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예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go.kr) :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정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자치법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 “9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누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요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만 한다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요청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싱크카페(blog.thinkcafe.org) : “싱크카페의 운영원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드러내고 연결하고 적용시켜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을 나누는 카페 혹은 대화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그 동안 진행된 싱크카페의 여러 주제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화 내용과 동영상,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다.”

- 풀뿌리운동 메타블로그(grasslog.net) : “이 블로그는 풀뿌리단체 혹은 활동가 등의 블로그를 연동시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메타블로그, 즉 블로그들의 허브다. 물론, 풀뿌리운동 단체나 활동가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원하는 시민운동단체 혹은 활동가들이 요청만 하면 메타블로그에 자동으로 접속된다. 풀뿌리, 정치, 지역, 시민운동, 교육, 마을, 공동체 등의 주제가 있다.”

## ※ ‘지역살림운동 길잡이’가 나오기 까지

‘지역살림운동 길잡이’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한 해 동안 ‘지역살림운동 연구모임’ 차원에서 논의해 온 내용들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 ■ 지역살림운동 연구모임 참여자

김석순(한살림서울 이사)	주요섭(한살림전북 이사장)
김재겸(한살림서울 상무)	황영단(한살림서울 활동가)
박혜숙(한살림서울 동부지부장)	김현(전 풀뿌리자치연구소 상근운영위원)
신건준(한살림충주제천 사무국장)	이해정(전 맑은내방과후학교 대표)
심미경(한살림경기남부 수원지부장)	하승우(경희대 겸임교수)
윤형근(한살림성남용인 상무)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진(한살림경기남부 상무)	하만조(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김재겸, 윤형근, 윤희진, 이해정, 김현 님은 역할 변화로 2011년 3월까지 연구모임에 함께 하였습니다.

### ■ ‘지역살림운동 길잡이’ 기획 및 진행 과정

연	월/일	진행 내용
2010	6/23	지역살림운동 가이드북 발간 기획
	7/23	주제 선정과 내용 토의
	8/26	관련 사례 수집 및 토의
	10/1	구성 체계 및 내용 정리
	11/5	가이드북 초안 틀과 내용 구성
2011	3/18	연구모임 재구성, 가이드북 구성 방안 검토
	4/20	가이드북 초안 내용 검토, 체계 재구성
	5/25	구성 체계 및 내용 보완
	6/15	워크숍으로 활동가 의견 수렴 및 보완과제 확인
	7/27	가이드 북 제목과 집필 방향 정리
2012	1/10	‘지역살림운동 길잡이’ 정리 내용 검토
	1/17	지역살림운동 연구과제 결과 보고회
	1/31	편집 완료 및 발간
	계획	지역 및 영역별 내용 설명회 진행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402호 | 전화 | 02-6931-3606~9 | 전송 | 02-2269-1309  
블로그 | [www.mosim.or.kr](http://www.mosim.or.kr) | 전자우편 | [mosim@hansalim.or.kr](mailto:mosim@hansalim.or.kr)